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격려와 지지는 보배 중 보배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변도 수시로 일어난다. 별로 크지 않은 지구지만 곳곳에서 화산폭발 지진, 환경공해 등으로 지구표면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 거기에다 인간의 무한한 탐욕은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더더욱 지구를 망가뜨려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사막화 한다. 때문에 하찮은 일에도 투쟁적이 된다. 믿음도 사라진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과도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경우가 많다. 끈끈했던 애정이 피차간에 다가갈 수 없는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도저히 종잡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세상이다

이런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부터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신적 만족감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기질 때문 가능하다. 그릇이만 남을 격려할 수 있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루돌프 드레이커스는 "식물의 성장을 위해 물이 필요한 것과 같이 어린이의 발전을 위해서도 칭찬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어린이가 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금만 잘못해도 나무란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을 꼭꼭 꼬집어서, 모든 것을 어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잘못을 했더라도 가능한 격려의 방

법을 써야 한다. 격려는 용기와 희망, 새로운 정신을 갖게 함으로써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이다. 인생의 초기 경험에서 격려보다 벌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의 현실이다

때문에 진취적이지 못하다. 때에 주도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무슨 창조적인 삶이 이뤄지겠는가. 이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를 침잠시켜 버릴 수 있다. 인간에게는 '자성예언'이라는 것이 있다. 때문에 자꾸 잘못된 지적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잘못된 저지르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

결국 그것이 낙인이 되어 그렇게 돼가는 것이다. 내재되어 있는

자동조종장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거꾸로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든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어쩌면 이번의 실수가 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을 반성교사 삼아 다음에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격려해 준다면 어떨까. 아마도 다음에는 실수보다는 제대로 된 완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격려가 있는 지지적 환경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한다. 이는 곧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럼으로써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거꾸로 기를 죽이는 위협적인 환경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곧 낙담과 두려움만 안겨준다. 결국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격려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낙담의 악순환구조는 인간 개인은 물론 그 집단과 국가사회까지 좁아버리기 때문이다. 격려와 지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보배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면 어떨까. 멋진 사회로 가는 가교로 말이다.

社說

불법 광고물 강력 대응해야

광주시가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무차별적인 전화 공격을 시도할 예정이라니 관심이 모아진다. 오죽했으면 이같은 방법을 고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같은 방법으로 광고물이 근절될까 하는 것인데 우선은 불법 광고물 퇴출에 발 벗고 나섰다는데서 큰 위안을 받는다.

광주시에 기존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 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광고 수요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택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광주시에 고금리 대부업, 성매매 알선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화로 자동 경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불법 광고물 길러 시스템을 7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를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의 경우 3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한다.

일반 불법 현수막은 하루 1~2번 전화를 걸어 자체 철거를 유도한다.

광주시에 대포폰 사용이 많은 불법 광고물 전파의 경우 신고부터 사용정지까지 2주 가량의 시간에서 벗어나 불법광고 수요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경고메트로 불법 광고문 확산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 이번 조치로 불법 광고물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이른 무더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며 6월말부터 7월초에 장마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적, 계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과거 통계를 통해 알고 여름철(6~8월)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이다.

첫째, 폭염과 식중독 안전사고이다. 폭염은 각종 운영환자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발생 빈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폭염특보가 내

려지거나 온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야와 야외와 영유아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폭염 속 내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익혀서 먹고 식기류 소독과 손은 자주 잘 씻어야 한다

둘째, 물놀이 안전사고이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서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놀이 위험 및 금지 구역에서는 아무리 깊이가 낮더라도 물놀이를 금해야 한다.

셋째, 감전사고이다. 6월에는 장마 전의 고온 다습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최근 5년간 전기 감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 충전부의 직접적인 접촉이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크, 누전 등이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신호등, 가로등, 에어컨 실외기, 입간판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넷째, 자전거 안전사고이다. 6월은 연중 자전거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라이딩을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신나지만 속도에 비해 안전을 지켜줄 기본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장비를 꼭 챙기고 다른 친구들과의 속도 경쟁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가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으므로 생각하고 살피며 주의하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혹여 높은 습도와 더위로 인해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없지 않다면 방화, 물치마 폭행 등을 막을 수 있는 서로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府羅將相

미을 부
별일 라
장수 장
서로 상

府羅將相

▷ 뜻: 미을 좌우(左右)에 장수(將帥)와 정승(政丞)이 별려 있음.

湖南新聞

대표 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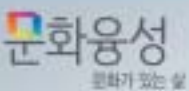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